

큰 스님 수행한담

참으로 잘사는 인생이죠



88년 5월 19일 쌍계사 탑전에서 고산스님(왼쪽)이 도반인 우룡스님(학성선원 조실)과 함께 선전강을 내려다보며 다담(茶談)을 나누고 있다.

씩 잠을 자며 경을 공부했지요. 이런 노력덕에 나중에는 내게 손가락질하던 도반들이 예의를 갖추고 경을 물으러 오곤 했습니다. 더구나 나의 화두 참구도 경학(經學)의 힘을 얻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어요. 당시 <화엄경>을 볼 때는 사·나흔씩 침식(寢食)을 잊고 법열에 빠진 적도 많았어요. 결국 禪과 教가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지요.

올만 먹으면 흰회 보였죠. 고봉스님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공부 더 해라' 하시더군요. 다시 극락선원의 경봉스님께 달려 갔더니 역시 '공부 더 해라' 하세요. 경봉스님 말씀이 '제8 아뢰야식이 맑아지면 온 세상이 흰회 들여다 보인다' 하더군요. 이른바 식광(識光)의 경계였던 겁니다.

“희생하는 마음 쌓이고 쌓여 사회가 건강” 8만4천법문 바로사는 길 안내하는 뗏목

사·범어사에서 강사를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봉스님께 전강을 받았지만 참선을 중도에 그만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화두참구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고봉스님 밑에서 경을 배울 때 하루는 정(定)에 든 상태에서 깨친 바가 있어 무릎을 탁 치고 계승을 읊었지요.

이렇게 경을 공부하다가 우룡스님(학성선원 조실)과 함께 고봉스님으로부터 전강(傳講)을 받고 61년부터 69년까지 침암

견문여허공(見聞如虛空) 각지담어수(覺知澁如水) 담연허공중(湛然虛空中) 죽견본래인(即見本來人)

산하대지비로체(山河大地無體) 초목합령석가쟁(草木合靈釋迦行) 일월성주세불안(日月星宿諸佛眼) 쌍계유수고산심(雙溪流水高山心)

보고 들음이 허공과 같고 깨달아 알아 담담하기 물과 같다 담담하고 텅빈 가운데에 본래인을 보았도다

다시 10년이 흘러 쌍계사의 서방장을 재건하고 좌선에 들어있는데 또 무릎을 칠 일이 생겼지요.

이 경지에서는 눈을 감고 있어도 삼천 대천세계가 다 보였어요. 그러나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화주보살의 부덕이든 마

심행일장몽(心行一場夢) 식심즉시교(息心即是覺) 몽교일여중(夢覺一如中) 심광조대천(心光照大千)

“요즘은 산문박이고 안이고 노력도 안하면서 결실얻으려는 못된 풍토가 만연해있어요 ‘一日不作 一日不食’ 참뜻 되새겨야”

마음이 행하는 것은 한바탕 꿈이요 마음을 쓴 것이 곧 잠깐 것이로다 꿈과 생사가 한결같은 가운데 마음공명이 대천세계를 비추도다

이 계승을 읊고는 춤을 추며 기뻐했지요.

내 경험으로 볼 때 사미계를 발자마자 선방에 들어가는 풍조는 분명 문제가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교학이 어느정도 기본이 되지 않고는 헛고생만 하는 수가 많다는 걸 도르는 겁니다. 사교입선(捨教入禪)이라는 것도 선교쌍수(禪教雙修)를 전제로 한 말임을 잘 몰라요. 교학을 제대로만 익히면 참선수행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8만4천법문이 바로사는 길로 안내하는 뗏목이 되고 가장 빠른 지름길 노릇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자요. 선과 교를 분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선시불심(禪是佛心)이요 교시불어(教是佛語)요 율시불행(律是佛行)이라.' 즉 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教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이라는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모름지기 수행자는 마음 씀씀이, 말 한마디, 계행 하나 하나가 중생의 사표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1976년에는 부천시 원미동에 천막법당을 세웠습니다. 당시 인구수에 비해 교회가 가장 많은 부천시에, 더구나 유명한 신암촌이 있던 바로 옆에 법당을 마련한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어요. 당시 30명이던 신도가 3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오늘날의 석왕사가 터전을 잡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지요. 그후 중앙포교사가 되면서 부터는 유

교 도교 예수교 등을 공부했습니다. 타종교인과 비교해보면 할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 설득력 있는 포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지금도 신부님과 목사님들과는 자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회생이 모이면 사회가 절로 건강해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기 욕심만 쟁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요. 대통령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집은 없어도 외제차 타고 으시대면 대접받는 허위의식이 청산되어야 해요. 국민정신을 달랠려면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과 사리사욕을 내던질 때 수행자는 중생이든 모두 이롭게 돼요. 사리사욕 먼저 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잘사는 참인생입니다.

은고지신(溫古知新)의 정신문화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없어요. 박정희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정신을 개혁해서 나라 발전이 어느정도 가능했던 예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종교가 앞장서야 해요. 모든 종교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유교의 윤리도덕과 예수교의 구생천국(救生天國), 도교의 연심정기(鍊心精氣), 불교의 명심견성(明心見性)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린 후 이웃과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어요.

먼저 우리 불자들이 모범이 돼야 해요. 수행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야만을 남김없이 비운 후 불법을 받아들여야 해요. 신도들은 우선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열매이든 참사이든, 8만4천법문과 1만가지 방편, 그리고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한 우물을 파기 바랍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한가지 기술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하듯 불법도 이와 같습니다. 한 스승 밑에서 우직하게 배우야 뭐라도 됩니다. 하나를 선택했다면 꾸준히 끝간만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을 채찍질하며 정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종교인의 자제인 동시에 생활인의 자제입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니쁜 일들은 왜 생립니까  
문 ①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공 공 지리는 근본자리, 불성, 자성 부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공 자리에서 니쁜 일들, 번뇌 따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업 때문이라, 인과응보라, 혹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진화할 필요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②미생물을 이용해 폐수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점차로 폐수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도리를 이용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유전자 조작으로 새로운 생물체를 만드는 방법이 진화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은 아닌지요?(오상은·광주 과학기술원)  
육조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성이 본래로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이 만법을 들고 밤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신 게 있습니다. 자성은 본래 더럽다 깨끗하다도 없고

지 상 상 담  
길 열 문 는  
이 에 게  
독자주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 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극의 진리가 있으면 사신·팩트 보좌주님으로 정수되는 신사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암선원 대법스님께 묻고 답을 통하여 편집자가 정리·개제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늘거나 주는 일도 없이 그대로 여여 합니다. 여여한 가운데 만법이 들고 난다하였습니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성의 근본자리는 다만 힘을 배출해 줄 뿐 일체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로 돌아가는 발전소처럼 전력을 생산해서 보내줄 뿐 말고 가깝든가, 크고 작다든가하는 구별을 두지 않는 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동으로 흐르는 전력을 크게 쓰려면 크게 쓰고 적게 쓰려면 적게 쓰고 그야말로 제 마음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끝내다가 못 터를 돌리든지 형광등을 밝히든지 원하는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먹는 다는게 한나도 한나도 떨어지지 않게 해서 마치 마음이라는 거대한 컴퓨터에 날뻐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었다가 때가 되면 술을 풀러나오는데 그때 이르러 좋은 일 낚은 일이 연방 다가오게 됩니다. 그걸 선입니다. 악업이다 또는 인과응보라 그러는데 그때에 그것을 공부재료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에 도리를 풀러서 중생을 잔뜩 낚아지고 왔는데 거기에 또 집어지려하지를 말고 내려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방학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온 자리에 내려 놓아라, 그래야 먼저 입력된게 지워진다 하는 말이지요.

그러면 주인공 자리에서 왜 그렇게 나오느냐고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

그것까지도 주인공자리에 놓고 관해보시기 바랍니다.  
②일체 중생은 유정 무정이 다 둘이 아니라 근본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심이요 공제입니다. 공심 공제로써 또 공생 공용 공숙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나 나니 할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일마다 모조리 너나 나니 구분해서 같고하고 싸우는 일만 열심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온전해질리 있겠습니까? 자연만 해도 그렇습니다. 풀이 아나기 더붙어 살아야 할텐데 온갖 까발리고 찢고 파헤치고 마구잡이로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우리 몸통이의 오장육부가 서로 저 잡히고 저만 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겠지요. 그래서 현대과학은 유위법에만 매달린 50%짜리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니 본래 도리가 그렇지만 나머지 50%인 무위의 도리를 모른다면 온전한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나는 심성과학이라는 말로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미생물을 이용한 폐수처리도 공심공용 공식 공제의 도리로 풀어야만 바른 길이 나오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다시 한계에 부딪히고 말것입니다.  
새로운 생물체를 만드는 일도 50%짜리 과학으로 처리하면 그건 아닙니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지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방생 탐사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선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태아가 임마의 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 율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오르본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오르본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 5. 기미가 있다. (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 16. 뚱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
- 17. 변비가 있다. ( )
- 18. 당뇨와외상성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지희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